

차이웃 타나카마누썬 디지털 경제 사회부 장관은 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사업 행동이 있는 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정부에 페이스북(Facebook)의 작업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온라인 소셜 단체 및 그룹의 대표인 넝너이 앓사와키티컨으로부터 문서를 받다

입력 2021.09.10



2021 년 9 월 10 일 금요일 13.40 시 국회의사당 1 층 (중앙구역) 제출처에 차이웃 타나카마누썬 디지털 경제 사회부 장관은 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사업 행동이 있는 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정부에 페이스북(Facebook)의 작업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온라인 소셜 단체 및 그룹의 대표인 넝너이 앓사와키티컨으로부터 문서를 받았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있다.

1. 태국에서 사업은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태국 법률에 따라 사업을 하는지
3. 독립적인가
4. 수천만 태국 사용자의 개인 정보 수집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하는지

차이웃 타나카마누썬 디지털 경제 사회부 장관은 문서를 받은 후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이것을 따라 국가의 주요 기관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동안 정부는 부적절하고 불법적이며 보안을 위협하는 사용자 계정을 폐쇄하는 2017년 컴퓨터 범죄법에 따라 많은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페이스북 자체는 모든 면에서 태국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노력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디지털 경제 사회부는 국가의 주요 기관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추진할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편집: 태국하원사무처

번역: 썬자이 통쿤, 하원사무처 외국어 지원사무국